

한류(韓流) 속 영원한 한류(寒流)는 아닐까?

전통문화와 국악계의 남모름 속얹이

최효민 국악방송 PD

culture art
‘한류’의 태생을 고민해 본 사람 이라면 철저히 엔터테인먼트에 입각한 것도 아니고, 그다지 예술 적이지도 않은 국악의 어설픈 퓨 전은 해프닝으로서 기억될지언정 즐길 만한 것으로 다가오지 못한 다. 전통 음악의 세계화는 치밀하 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라 전체를 멋진 아트 마켓으로 만들 때, 전통 문화는 분명 ‘한류’ 속에 ‘난류(寒流)가 될 것이다.

깊은 고민은 차치해두고 애써 명료하게 말하자면, 소위 중앙무대를 점거한 국 악계와 전문화 관련 종사자들은 세계문화계에서 ‘꽤’ 대접받게 되어 있다. 가 을에 있었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도 주빈국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 기 위해 국립국악원은 종묘제례악 등을 연주하기 위한 대규모 공연단을 파견 했고, 11월 부산 아펙(APEC)정상회의에서도 두루마기가 제법 잘 어울리던 회원국 정상들은 한류 스타 보아의 화려한 무대와 함께 중견 소리꾼의 공연도 지극히 당연히 감상해야 했다. 고래로부터 사신의 행렬이나 국가적 행사에 접 객용 풍악이 빠지는 법은 없었으니까. 지금도 크게 다른 건 없다. 그래도 물 밖에서 들어온 손님을 맞이할 건데, 자르르 고유의상을 차려 입고 창 한 대목 은 해야 구색이 맞지 않겠는가. 그 잔치상 차리는 사람은 그것이 정말 예술적 인 감동을 주는가 혹은 몇 날 며칠 가슴이 저릴 만큼 황홀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이국적인 음악에 손님들의 이목을 잠시 집중시키면 그만이니까.

희소가치의 위안-몹시도 이상하고 슬픈 정당화

혹여 그 손님 중 누군가가 용감하게 한국의 전통음악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 음을 운운하며 고개를 외로 꺾다면 그를 그 자리에서 상대방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무시하거나 식견이 부족한 오색한 비교양인으로 간주해버리면 그만 이다. 그러잖아도 “귀하가 듣고 계신 종묘제례악과 판소리는 유네스코 세계문 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자랑스러운 음악이지요”라고 설명하면 골동품 가게 에 나온 고대 티벳 라마교 절간의 돌쩌귀에서도 하염없이 동양적 신비를 느끼

일종의 전통문화, 혹은 전통음악이 세계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국가 차원에서 치밀한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그것은 한국문화를 공연 차원에서 변환시키는 연구기관일 수도 있고, 좋은 예술가를 일찌감치 지원하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 풍부한 아카이브를 만들어 한국을 아시아 문화의 허브로 만드는 일까지 포함된다.

Asia Culture

는 벨스런 취향의 '엔틱 마니아' 들은 대륙에 돌쩌귀처럼 박힌 동아시아의 제사음악과 원맨쇼 오페라에 기본적인 호기심을 보이며, 알 수 없지만 신비로운 기운에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어 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순간 한국의 전통예술이 상당히 환상적인 매력을 가진 것으로 잠시 행복한 착각을 한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흥분기가 가라앉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상한 슬픔이 몰려온다. 해외는커녕 국내에서조차도 아무도 우리음악을 정말 좋아서 찾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을 때, 십 수만 원을 내고 일본식 여성 뮤지컬 다카라즈카 극단의 예약은 척척하던 사람들이 국악공연이 무슨 주제에 삼만 원씩이나 하나며 비분강개하며 초대권을 구하거나, 국립국악원의 토요일 공연의 가을 관객의 80%가 수행평가 점수를 따러 온 학생들로 채워졌다가 11월부터 마치 겨울나무처럼 서서히 잎을 떨구며 양상한 객석 뼈대만 남는 반갑지 않은 계절 변화를 겪을 때, 대개 그들과 그들의 관찰자는 약간 슬프다.

그리고 애써 속빈 강정 같은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본다.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희소가치가 덜하지 않은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줄 사람은 다 알아주는데, 뭘 우리나라 관객 수준이 다 그렇지 뭘. 외국에 나가면 그래도 국악을 안 빼고 불러주는데 뭘. 그럼 뻘지. 국악계에 '보야' 만한 파워를 가질 인재를 키울 생각은 없지요.

다른 대중문화계와 예술계가 소위 한류 붐을 타고 발 빠르게 움직일 때, 국악계는 남 보기에 별로 설득력 없는 특유의 겸손함과 고매한 자세로 일관해 왔다. 그러면서도 어디가서 이젠 클리셰처럼 지리한 관용어구로 말은 잘한다.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힘써야지요."

속빈 강정 '한류'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 조금 더 나아가서 한국 고유문화에 열광하는 세계인들의 한류 열풍. 누구나 정말 그럴 필요를 느끼는 것일까. 매물차게 말한다면 그건 대부분 단지 습관적 발언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몇 달 전에 한 대중음악인이 고위 문화관련 관리들 앞에서 소위 한국국민과 문화관련 종사자들이 느끼는 '한류' 로 인한 감동은 거의 속칭 '자뻑' (스스로 만족하여 지나치게 황홀해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정 없는 발언을 해서 파문이 일기도 했는데, 그 발언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류의 빈 속 사정은 생각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몇몇 대중가수와 배우의 아시아권 진출의 성공 배후에는 특별히 그것이 '한국' 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한 또래의 일반적인 속성상 탠디한 미국의 스타에게 감정표현을 아끼지 않고 맹목적인 애정을 퍼붓는 아시아 틴에이지들의 과민반응이 뒷심을 받쳐주었다는 것이다. 대중 스타들은 무대와 스크린을 위해 훈련되고 다듬어지

고 조각된 이들이니 정확히 말해서 한국의 문화적 정책과 지원이 한류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철저히 아시아권을, 한국보다는 좀 더 큰 시장을 생각한 대형 엔터테인먼트들의 프로젝트 수준에서 흡족할 만한 성공이라고 보면 정확하다.

물론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성공이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정책 관련자들이 이 성공에 뒤늦게 주목하고 한류 주도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이 한류의 결과가 비록 섀길 루트이긴 하지만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고, 게다가 '돈도 벌어 주었다' 는 것이다. 언제라고 우리나라에서 전통문화는 물론이고, 영화든, 음악이든 그것이 형식상 문화교류를 제외하고 '돈이 되어' 돌아온 적이 있었던가. 순수 문화예술계에서 해외 '초청' 공연은 최근까지 그저 보여주는 데 의의를 두는 자비 순회 공연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그나마 그것조차 입맛 까다로운 아트 테이스터들에게 한국 문화 특유의 이미지를 보여 주기에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공연을 홍보하고 기획하는 마케팅하는 시스템은 지극히 면구스러운 수준이었으니, 최첨단 IT 강국에서 문화네트워킹 시스템은 어인 일로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런 나라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불어 닥친 '한류' 는 주로 아시아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틈에 한국의 전통문화와 기타 예술도 면피를 하고 한 몫 할 수 있으리라는, 어쩌면 실낱같은 희망을 준 셈이다. 그간 여러 예술계의 '유유자적' 과 고매한 '자뻑' 을 묵인해 주던 문화정책계에서는 이들을 흔들기 시작한다. 대체 너희들은 '한류' 에 무슨 기여를 해줄 것이냐? 재해석이든, 퓨전이든 스타시스템이든 돌려보자. 문화가 경쟁력이라는 데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그래도 고유의 것이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자, 그 분위기에 맞서 모두들 박수부대가 된다. 국악계의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 혹자는 국내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북채도 잡아 본 일이 없는 대중음악인들과 국악인을 묶어서 변종음악을 만들어 한 달 동안 축제를 열기도 하고, 프랑스 국제음반박람회(프랑스국제음반박람회)에 퓨전국악음반을 들고 가기도 하고, 아트마켓에 구석 맞추기로 한국

의 젊은 퓨전음악그룹을 불러 구태여 이 음악도 사갈 사람이 있는지 기웃거리 본다. 하지만 '한류' 의 태생을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철저히 엔터테인먼트에 입각한 것도 아니고, 그다지 예술적이지도 않은 트레이닝 덜 된 국악의 어설픈 퓨전은 해프닝으로서 기억될지언정 즐길 만한 것으로 다가오지 못한다. 감상거리는 더더욱 아니다. 전통 음악의 세계화는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필성부른 음악인들을 삼 년 합숙훈련 시키는 건 왜 안되나? 일종의 전통문화, 혹은 전통음악이 세계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국가 차원에서 치밀한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그것은 한국문화를 공연 차원에서 변환시키는 연구기관일 수도 있고, 좋은 예술가를 일찌감치 지원하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 풍부한 아카이브를 만들어 한국을 아시아 문화의 허브로 만드는 일까지 포함된다.

나가지만 말고 불러들여라- '한류' 리는 용어의 폐기처분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신드롬을 일컫던 '한류' 라는 용어는 이제 한국이 모든 문화의 문화상품화, 혹은 문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의 고급화까지도 고려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변용된 듯 하다. 하지만 이 말은 어디까지나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문화 열풍을 그들의 시야에서 포착한 용어인 만큼 우리나라가 스스로 쓰기에는 적절치 못한 감이 있다.

더구나 경기도에 조성된다는 한국 대중문화 타운의 이름이 '한류우드' (이것이 정말 확정된 용어일까)이다.



경기도에 조성되는 한국 대중문화 타운 '한류우드'

좀더 깊은 안목으로 소위 '한류' 를 지속시킬 생각이라면 위축되어 지속력이 있는 것들로부터 내재된 힘을 끌어올 수밖에 없다. 물론 대중적인 '한류' 에 애써 찬 물을 끼얹고 싶지 않다. 주름 종이처럼 무한한 연장성을 가진 전통문화의 속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한국의 전통문화와 음악 시스템을 가지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Traditional Culture

그 할리우드를 연상하는 조잡한 조어력도 그러하거나 스스로 범위를 한정시키고 알팍한 속이 보이는 '한류우드' 의 조성계획안은 최근 들어 중국과 일본 기성세대에 일고 있는 '반한류' (反寒流) 반, 아니 혐한류(嫌寒流)의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지극히 '한류' (寒流)스럽다.

좀더 깊은 안목으로 소위 '한류' 를 지속시킬 생각이라면 위축되어 지속력이 있는 것들로부터 내재된 힘을 끌어올 수밖에 없다. 물론 대중적인 '한류' 에 애써 찬 물을 끼얹고 싶지 않다. 주름 종이처럼 무한한 연장성을 가진 전통문화의 속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한국의 전통문화와 음악 시스템을 가지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 음악의 명상성을 살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명상음악 축제' 를 열어 본다든지, 예술적으로 뛰어난 상여소리와 제례음악이 있으니 아시아 레퀴엠 축제를 생각해 본다든지, 아시아권의 전통음악을 가장 잘 녹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스튜디오와 최고의 아시아권 전통문화 아카이브를 조성해서 일반인

들의 관람을 세계 문화 관련인들 사이에 새로운 아시아 문화의 메카로 만들어 본다든지, 최고의 아시아 음악문화(전통문화)방송을 보유해서 허브로 만들어 본다든지, 생각하면 무한하다.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단지 국가의 문화 사절로서 만족하면서 들끓는 문화 전쟁터의 변방에서 고요히 현을 뜯는 음악인들의 고요한 체념과 쓸데없는 자존심도 사라질 것이다.

보따리 장사할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 전체를 멋진 아트 마켓으로 만드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전통문화는 분명 '한류' 속에 '한류(寒流)가 될 것이다. 분야가 좀 다르기 하지만 하나 더 제안할까? 최고의 섬유산업 강국인데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이루지는 수문장 교대식의 퍼포머들의 옷은 싸구려 현수막 천을 뜯어다가 만들었는지 초라하기 그지없다. 애정이 행운을 부르는 법. '한류' 에 열광하며 우리나라를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더 품격 있고 풍부한 문화로 감동을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애정의 결과로만 이루어질 것이다. 🎨

기'획' 문화나 예술이나 - 새로운 예술로 새로운 문화를 ⑧
한류, 대중에서 예술로 _ 예술의 새로운 움직임들 한류로 이어져

한류, 예술교류를 동반한 문화적 재발견의 과정으로

이규석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culture | art
바야흐로 우리는 아시아의 이웃들에게 문화적으로 재발견되고 있으며, 그 전면에는 '한류' 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류열풍을 '예술교류를 동반한 문화적 재발견' 의 과정으로 새롭게 갖춰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류' 는 한국 대중문화 일변도의 알팍한 지류가 아닌, 아시아의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새물결과 만나는 아우라지가 될 것이다.

한류의 아시아적 확산과 위기

한국전쟁 이후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희미한 존재감으로 자리하고 있던 한반도가 세 차례에 걸쳐 재발견되었다. 그것은 각각 '경제적 재발견' '정치적 재발견' '문화적 재발견' 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의 고도압축 경제성장은 아시아로 하여금 한반도를 재발견하게 해주는 첫 번째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민주화 과정은 정치적 재발견의 관점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 곳곳에 진출한 수많은 '○○사파' 들의 말쑥함을 빌어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아시아 역내에서 문화적으로 재발견되고 있다. 불과 50여 년의 길지 않은 시간에 걸쳐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재발견되고 있으며,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한반도의 경제적 재발견은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던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에게 '경제적 자신감' 을 고취시켜 주는 역할모델이 되었다. 물론 고도압축 성장에 따른 폐해와 같은 부정적 측면에서도 톡톡히 전범 역할을 수행했음도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사회의 역동적 민주화 과정은 이웃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에 또 다른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었다. 요컨대,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재발견은 아시아의 이웃들에게 경제적 방면의 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든든한 동료로서 그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었다.

바야흐로 우리는 아시아의 이웃들에게 문화적으로 재발견되고 있으며, 그 전면엔 '한류' 가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정치·경제적 재발견의 과정과 달리